

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력 이용실태 및 시사점
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과 고정순 064-760-7313

농촌인구 감소, 고령화 등으로 농업부문 노동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, 코로나19로 인한 국내·외 이동 제한 및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국 등으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노임상승 등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.

제주지역은 과수·채소 등 밭농사 지대이면서 농업기계화율도 낮아 노동력을 대체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농업노동력 문제는 향후 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.

이에, 제주지역 농업(경종)부문 고용노동력 이용실태를 통해 대응방안 및 시사점을 살펴 보자

□ 농업 고용노동력 이용실태

- 농가들은 주로 일용근로자(97.2%)를 고용하고 있었으며, '20년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내국인에 비해 5~10%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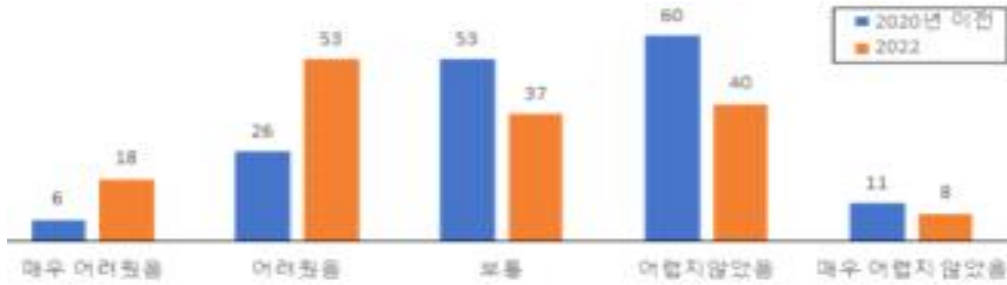
<농가 고용노동력 평균 지불임금 비교> (단위: 원, %)

구 분	남자		여자		내국인 대비 외국인 임금 수준(%)	
	내국인(a)	외국인(b)	내국인(c)	외국인(d)	남	여
2020년 이전	156,000	126,170	90,803	96,400	△19.1	6.2
2022년	172,988	153,561	104,370	115,404	△11.2	10.6
'20년 대비 변화율(%)	10.9	21.7	14.9	19.7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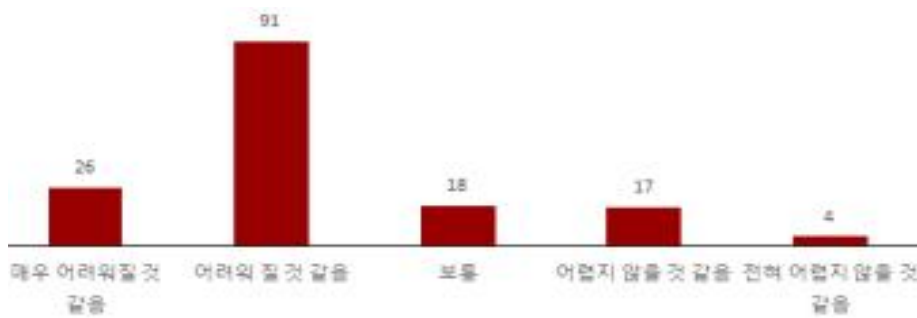
주) 임금에 식비 및 간식비 포함

- 농가들이 고용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'20년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, 향후에도 고용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음

<고용인력 확보 여건 변화> (단위: 명)



<향후 고용인력 확보 여건 전망> (단위: 명)



- 향후 고용인력 확보 곤란 시 임금 상승 이외 농가 자구책으로 규모 변경, 콩·보리 등 노동력 투입이 적은 작물로 전환, 밭작물에서 과수, 감귤 내에서도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, 시설재배에서도 작업시기 분산을 위한 품종 배치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향후 고용인력 확보 곤란 시, 임금상승 이외 대비 방안>

구 분	영농규모 변경	재배작목 변경	작목배치 조정	휴경	농지임대	농작업 기계화	판매방법 변경	기타
빈도수	36	19	5	11	5	32	10	44
비율(%)	22.2	11.7	3.1	6.8	3.1	19.8	6.2	27.2

□ 농업 고용인력 확보 문제의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

- 농업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농협·행정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
- 농작업 편이시설·기계화를 위한 재배환경 및 재배기술의 개선 및 확대 보급
- 장기적으로 제주에 적합한 농기계의 도입 또는 개발 필요